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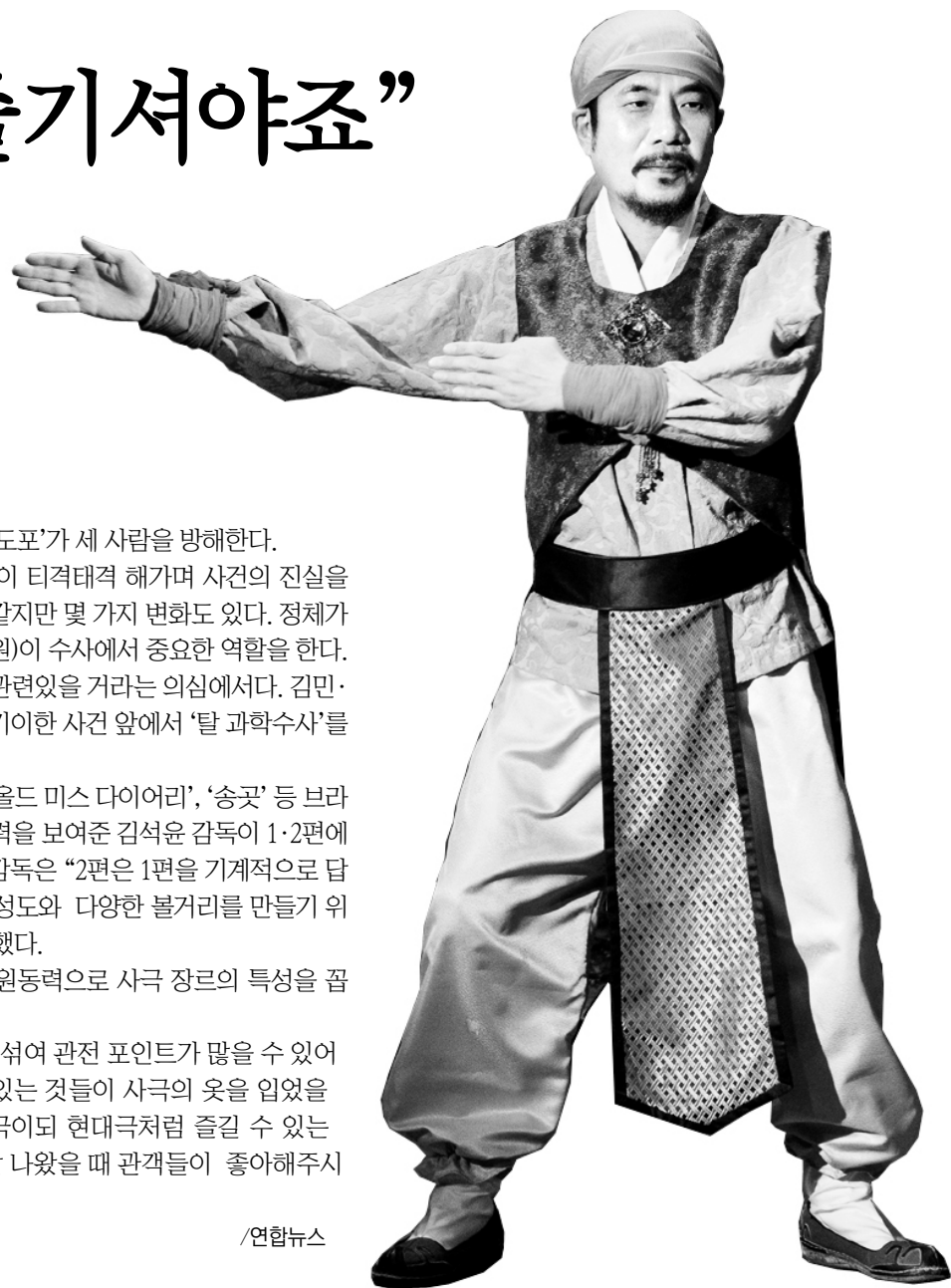
# “설날엔 명민·달수 코믹함 즐기셔야죠”

영화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  
로맨스 부럽지 않은 브로맨스 수사물  
“설날 개봉하려는 의무감 생겼어요”

“이제 설날이면 관객에게 ‘조선명탐정’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김명민은 3일 서울 강남구 CGV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 제작보고회에서 “조선명탐정”은 장르를 개척하는 작품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제작보고회에는 배우 김명민, 오달수, 김지원과 김석운 감독이 참석했다.  
다음달 간판을 내거는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은 총무로에서 보기 드문 시리즈물이다. 1편 ‘각시투구꽃의 비밀’이 2011년, 2편 ‘사라진 늑의 딸’이 2015년 각각 설 연휴에 맞춰 관객을 찾았다.  
오달수는 “관객이 원하지 않는 시리즈는 만들 필요가 없다. 관객이 사랑해주면 반드시 4편이 만들어질 거고 전작보다 더 나은 연기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벌써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조선명탐정’ 시리즈는 1·2편 모두 400만명 안팎의 관객을 동원했다.  
‘조선명탐정’은 조선 제일의 탐정 김민(김명민 분)과 그의 파트너 서필(오달수)이 사건을 해결해가는 코믹 사극이다. 이번엔 연쇄살인 사건과 마주한다.  
명탐정 김민과 서필은 연쇄 예고 살인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또한 기억을 못하는 괴력의 힘을 지닌 여인이 합류해 함께 사건을 파헤쳐 나간다. 세 사람은 또 다른 살인을 예방하기 위해 범인

의 존재를 추적하지만 의문의 ‘흑도포’가 세 사람을 방해한다.  
히세 가득한 김민과 단짝 서필이 티격태격 해가며 사건의 진실을 캐는 이야기의 열개는 전편들과 같지만 몇 가지 변화도 있다. 정체가 불분명한 괴력의 여인 율영(김지원)이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이 사건과 관련있을 거라는 의심에서다. 김민·서필 콤비는 사흘마다 발생하는 기이한 사건 앞에서 ‘탈 과학수사’를 선언한다.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와 ‘울드 미스 다이어리’, ‘송곳’ 등 브라운관에서 장르를 불문한 연출 능력을 보여준 김석운 감독이 1·2편에 이어 다시 메가폰을 들었다. 김 감독은 “2편은 1편을 기계적으로 답습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완성도와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고심했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시리즈를 이어가는 원동력으로 사극 장르의 특성을 꼽았다.  
“코미디와 미스터리가 적절히 섞여 관객 포인트가 많을 수 있어요. 현대극에서는 그저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사극의 옷을 입었을 때 신선하게 보이기도 하고, 사극이 되 현대극처럼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죠. 저희만의 색깔이 잘 나왔을 때 관객들이 좋아해주는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 “이제는 뜨고 싶어요”



### 모모랜드, 김생민 피처링 한 ‘그레이트!’ 발표

9인조 걸그룹 모모랜드가 ‘대세 짘돌이’ 김생민이 피처링한 노래로 돌아왔다.  
모모랜드는 3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뮤즈 라이브홀에서 세 번째 미니앨범 ‘그레이트!(GREAT)’ 쇼케이스를 열고 “이제는 뜨겠다”며 당차게 포부를 밝혔다.  
더블엑 컴퍼니가 선보인 모모랜드는 2016년 7월 앨범 ‘서바이벌 모모랜드를 찾아서’로 총 7명이 발탁됐지만, 데뷔 첫해에는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에 작년 4월 데이지(19·본명 유정안)와 태하(20·본명 김태하)를 추가 영입해 전열을 가다듬었고, 주이(19·본명 이주원)가 음료 광고와 KBS ‘연예가중계’, MBC ‘라디오스타’ 등에서 통통 튀는 매력을 선보이며 조금씩 입소문을 탔다.

타이틀곡 ‘뽀뽀’는 스타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와 범이냥이가 만든 핑키하우스 장르의 곡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발산하겠다는 가사가 재치있게 들린다. 특히 후렴구에 개그꾼 김생민이 직접 유령 ‘그웨이!’를 외쳐 귀를 사로잡는다.  
주이는 “KBS ‘연예가중계’에서 인연을 맺은 김생민 선배님이 ‘그웨이!’ 한마디를 직접 해주시려고 녹음실까지 흔쾌히 와주셨다”며 “따아지 ~ 잘 돼야지”라며 기꺼이 도와주셨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앨범에는 ‘궁금해’, ‘세임 세임(Same Same)’, ‘플라이(Fly)’, ‘아미아미애’ EDM(일렉트로닉댄스뮤직) 버전 등이 수록됐다.  
멤버들은 팀 전체가 아닌 주이 개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데 대한 고민은 없었을까.  
연우(22·본명 이다빈)는 “전혀 아쉽거나 그런 감정은 없다”며 “주이가 오히려 열심히 해준 덕분에 모모랜드가 많이 알려져서 고

맙다. 다른 멤버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또한 주이는 “걸그룹 외모가 아니다”라는 댓글에 시달린 데 대해 씩씩하게 소회를 밝혔다.  
그는 “당연히 힘들고 속상했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직업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폼플레이를 숨기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미의 기준은 없고, 스스로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나마 관심을 받아서 모모랜드를 알렸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018년 걸그룹 중 첫 번째로 쇼케이스를 연 이들은 올해 목표표 음원차트 진입을 꼽았다.  
리더 헤빈(22·본명 이혜빈)은 “모모랜드는 에너지가 뽀뽀 넘친다는 걸 인지시켜드리겠다”고 다짐했고, 제인(21·본명 성지연)은 “차트 100위 안에 들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억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좌충우돌 만국유랑기	25 닥터 365 30 해피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흑기사(재)	50 로봇이 아니야(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UHD 한식의 마음	50 내 남자의 비밀(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00 12 MBC 뉴스 20 법상 차리는 남자(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통조림 55 특목 보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50 생생정보 스페셜	35 문화사색	55 닥터 365
2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감성투 고맙습니다 스페셜	50 자동차부착성 위키 2	20 똑? 똑! 키즈스쿨 50 뽀뽀야 사랑해	00 뉴스브리핑
3	00 박원숙의 같이 삼시디(재)	20 TV 유치원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5 위대한 영화의 탄생지 (이탈리아의 파리)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15 경제매거진 M 스페셜	00 세상에서 가장 힘든 등굣길 55 지식통조림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0 팔도방송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느릿느릿 나무늘보 놀 15 티빙메카드 R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00 5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애 웬수(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방송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애 웬수들 55 생방송 TV블로그 골지락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골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흑기사(재)	55 세상기록 48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40 신년특집 토론 2018 대한민국 격랑의 한반도 해법은?	00 흑기사	00 로봇이 아니야	00 이판사판
11	40 KBS 뉴스 50 청소년드라마 안단테	10 해피투게더 스페셜	10 MBC 스페셜	10 자기야-백년손님 1~2부
12	45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긋불긋	4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과학 탐험대)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뽀뽀 뽀로로 08:00 덩동영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재) 08:45 수확이 아호 09:00 똑딱맨 09:15 두다다(재) 09:30 풀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비.비.비.초의 낙지초우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일로해 하와이 4부 -비밀 정원을 가다, 카우아이)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12:40 지식채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크영화 길 위의 인생 (키르기스스탄 유목민 부자의 도전)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로봇 발명왕 러스티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45 랜드러너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16:30 수확이 아호(재) 16:45 덩동영 유치원 1~2(재) 17:15 웅감한 소방차 레이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7:45 뽀뽀뽀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4 19:00 사이언스타 Q (속담 진실 혹은 거짓) 19:30 EBS 뉴스	19:50 세상을 내버려 두는 법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소수민족의 고한 라오스 4부 헬름 투 아자족) 21:30 한국기행 (천바람 불면 네가 울까 4부 겨울이 맛있는 이유) 21:50 과학 다크 비온드 (불멸의 꿈, 냉동인간)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다크영화 길 위의 인생(재) 24:05 지식채널e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4일(음 11월 18일 丙申)
<b>子</b>	48년생 낚은 것은 버리듯 새 것에 대한 노력을 배가함이 적절하다. 60년생 어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72년생 현황의 추이대로라면 길경이 명백하다. 84년생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호기가 주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3, 94	
<b>丑</b>	49년생 상대의 언행에서 감지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61년생 마음먹은 바대로 행하느라 허등의 지장이 없었다. 73년생 흐지부지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 85년생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66, 17	
<b>寅</b>	50년생 개선한다면 분명히 효과를 보게 된다. 62년생 집착은 발전의 발목을 붙잡는 약재가 된다. 74년생 현대대로 지평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86년생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6, 21	
<b>卯</b>	51년생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그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 후환을 없애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63년생 드디어 나설 때가 되었으니 기민하게 행하라. 75년생 부가 가치가 크다. 87년생 병역의 순풍과 함께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64, 69	
<b>辰</b>	52년생 소모적인 동세이니 집착을 떨치고 과감히 버려야만 한다. 64년생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처해야 할 일들이 많아 서 번거롭다. 76년생 충격적인 자극을 받을 일이 생길 것이다. 88년생 일목요연하게 수렴하라. 행운의 숫자 : 45, 58	
<b>巳</b>	53년생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65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이니 놓치지 않도록 하여라. 77년생 치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허술해지기 쉽다. 89년생 다목적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07, 76	
<b>午</b>	42년생 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라. 54년생 노력한다면 분명한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66년생 체계적인 정리가 발전의 디딤돌이 된다. 78년생 본인의 생활에 충실 하는 것이 이익이다. 90년생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는 양태이다. 행운의 숫자 : 82, 75	
<b>未</b>	43년생 의지대로 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55년생 우선순위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낫다. 67년생 고르게 처리해야 용이함을 외친다. 79년생 양보가 가장 빠르고 유일한 방법이다. 91년생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실행하라. 행운의 숫자 : 98, 20	
<b>申</b>	44년생 만 가지 일이 뜻과 같이 되는 순조로움이 보인다. 56년생 자신 역시 예외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68년생 지지부진했던 일이 완전한 결말을 짓게 되는 날이다. 80년생 제대로 보아야 정확한 행세를 알 수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92, 17	
<b>酉</b>	45년생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난감해 하는 양태이다. 57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일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69년생 가벼운 조처가 무방하다. 81년생 권유받을 수도 있으나 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행운의 숫자 : 01, 13	
<b>戌</b>	46년생 일각을 다투는 일이므로 한 시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단행해야만 하느니라. 58년생 학습과대하여 왔던 기회가 밝게 빛나리라. 70년생 눈에 띄더라도 못 본 채하고 있는 것이 더 낫다. 82년생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00, 42	
<b>亥</b>	47년생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현상이 좌우될 것이니 과정에 따른 성과의 차이가 크다. 59년생 욕심 부리지 말고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자. 71년생 과단성 있는 집행이 중요하다. 83년생 인공음보의 세상 이치에 놀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0, 1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